

『동야회집』의 중국 필기소설 전유와 그 의미*

이 강 옥**

차 례

- | | |
|----------------------------------|--------------------------------|
| I. 문제의 제기 | IV. 『동야회집』의 중국 필기소설 전유
의 의미 |
| II. 『동야회집』의 전기소설 <李娃
傳> 전유 양상 | V. 결론 |
| III. 『동야회집』의 『해탁』 전유 양상 | |

I. 문제의 제기

李源命(1807-1887)은 『동야회집』 서문에서, 『於于野談』·『記聞叢話』 등의 이야기들 중 鉅話 및 故實을 증명할 수 있는 것 등을 모아 고치고 윤색하였으며, 민간에 전승되던 古談도 수록했다고 밝혔다.¹⁾ 문헌 소재 야담을 옮겨 적고, 구연되던 이야기를 기록하여 『동야회집』을 저술했다

* 이 연구는 2008학년도 영남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한 것임

** 영남대학교 교수

1) “偶閱於于野談 紀聞叢話 …… 遂取兩書 撮其篇鉅話 長堪證故實者 傍及他書之可資談洽者 并修潤載錄 又采聞巷古談之流傳者 綴文以間之”(鄭明基評, 『原本 東野叢輯』 상, 寶庫社(일본 大阪府立圖書館 소장본의 영인본임), 2쪽; 앞으로 『동야회집』의 원문 인용은 이 책으로부터 한다.)

는 것이다. 이와 같은 편찬 방침은 조선시대 야담집의 경우와 비교할 때 크게 다른 것은 아니다.

그런데 『동야회집』에는 서문이 언급하지 않거나 강조하지 않은 몇 가지 특징이 발견된다. 우선 각 이야기의 제목을 독자적으로 다르게 달고 있다. 다른 야담집으로부터 본문을 거의 그대로 옮길 때도 제목은 예외 없이 다르게 붙였다. 제목은 작품의 얼굴로서 작품 밖 세계와 작품 안 세계의 경계에 놓여 있다. 제목을 의식적으로 다르게 붙였다는 것은 작품 안 세계를 작품 밖 세계로부터 독립된 것이라고 인식했다는 증거다. 제목 붙이기는 작품의 독립성을 강조한 것이라 하겠는데, 그런 경향이 작품 서술과정에서는 다소 약해진다. 즉 이원명은 허구적이었던 주인공을 역사적 인물로 만들거나 역사적 사건과 결부되는 것으로 바꿈으로써 작품 안 세계의 독립성을 약화시켰다. 작품 밖 역사적 현실에 대한 작품의 종속성이 다시 강화된 것이다.

또 하나 『동야회집』의 특색은 다른 문헌의 작품을 옮겨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분명하게 나타내지 않는다는 점이다. 서문에서 『어우야담』이나 『기문총화』 등을 참고했다고 했지만, 정작 적지 않은 작품들을 옮겨온 『동패락송』이나 중국 필기소설집 『해탁』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해탁』 작품을 통제로 옮겨왔을 뿐만 아니라 ‘外史氏曰’로 시작하는 평결조차 그대로 베끼기도 하였다.²⁾

이처럼 『동야회집』에는 조선후기 다른 야담집과 상통하는 점이 적지 않지만 매우 색다른 점들도 있다. 『동야회집』이 조선 야담집에 실려 있

2) 『동야회집』의 편찬자 이원명이 당시 떠돌던 이야기들을 직접 채집하여 기록했다는 사실을 지나치게 과장하여 수용해서는 안 될 것 같다. 『동야회집』 작품 끝에는 ‘누구로부터 들었다’, ‘지금도 어디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한다’ 등의 문구가 있으나, 그것을 다 믿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가령, <返故妻換魂持家>(『동야회집』 하, 699면)는 『諧鐸』의 <鬼婦持家>(『해탁』 권7. 이하 『해탁』의 작품은 『필기소설대관』(筆記小說大觀) 3, 新興書局 有限公司, 民國 67년에 실려 있는 내용을 인용한다)를 베낀 것임에도 불구하고 평결에서 ‘姜(주인공 姜某의 후손)道此事甚悉’이라며 이원명 자신이 직접 들은 것인 양 기술하고 있는 것이다.

던 작품들을 어떤 방식으로 수용했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논의된 바가 있지만,³⁾ 단순한 수용이 아닌 독특한 방식에서의 전유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다. 본고는 『동야회집』이 타 문헌에 실려 있는 작품을 활용하는 독특한 방식을 일종의 ‘전유(Appropriation)’로 본다. 전유란 단순한 차용이나 수용과는 다른 것으로서, 다소 복잡한 의도를 갖고 다른 작품을 활용하여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행위이다. 본고는 이런 전유 현상이 『동야회집』에 나타난 것을 매우 중요하게 본다. 특히 <이와전>이나 『해탁』 작품 등 중국 필기소설의 전유는 조선 야담집 편찬 과정에 나타난 새로운 현상이어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사항이다.

지금까지 『동야회집』은 3대 야담집의 하나로는 인정되었지만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되어왔다. 본고는 『동야회집』이 부정적 속성을 다분히 갖고 있지만, 그와 함께 존재하는 새로운 문체적 현상을 부정 일변도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특히 중국필기소설 작품의 일부나 전부가 『동야회집』 한 작품의 일부로 수용되거나 다시 써진 사례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조선 야담이 당면한 어떤 상황 때문에 중국필기소설이 수용되었고, 그렇게 수용된 중국필기소설이 기존 조선 야담에 대해 어떤 긍정적 기여를 할 수 있었는지를 밝히는 쪽으로 논지를 이끌어 가겠다.

3) 조희용, 『조선후기 문헌실화의 연구』(형설출판사, 1980); 이강욱, 「조선후기야담 집연구」(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82); 두정남, 「『동야회집』 연구」(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90); 윤세순, 「『동야회집』의 성격 고찰-『어우야담』의 수용양상을 통해서」(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1991); 홍성남, 「『동야회집』 연구-『기문총화』 수용을 중심으로」(단국대 석사학위논문, 1992); 임완혁, 「문헌전승에 의한 야담의 변모양상: 『동패략송』과 『계서야담』, 『칭구야담』, 『동야회집』의 관계를 중심으로」(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1997); 이병찬, 『동야회집 연구』(보고서, 2005); 이강욱, 「『동야회집』의 『해탁』 수용 양상」, 『구비문학연구』(한국구비문학회, 1995)

II. 『동야회집』의 전기소설 〈李娃傳〉 전유 양상

2.1. 중국 고사와 중국 서사

이원명은 『동야회집』에서 중국 故事를 많이 차용한다. 가령 <繡衣給訪茶母家>가 樊噲와 薛仁貴의 고사를 활용한다면, <逐鹿客解縛論交>는 '鴻門宴 고사'를, <藏扇幣童女證約>은 '王陵과 范滂母의 고사'를 활용했다.⁴⁾ 중국 고사는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처지나 사건의 상황을 설명할 때 활용되거나, 등장인물이 자기의 생각을 상대에게 그럴듯하게 전하려 할 때 활용되기도 한다. 후자의 경우도 고사를 구사하는 것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인물이다. 그런 점에서 고사 활용은 등장인물을 사실적으로 형상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중국 고사들이 조선 사대부의 교양에 바탕을 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원명은 고사를 구사함으로써 조선 사대부 독자들의 관심을 끌고자 했을 것이다. 나아가 구연 이야기를 기록한 한문 야담의 투박한 문체를 좀 '세련'된 것으로 만들려는 의도도 있었다고 본다. 이로써 한문 야담은 단순한 기록이라는 성격을 떨쳐내고 사대부로서의 글쓰기라는 성격을 더 강하게 띠게 되었다.

『동야회집』이 중국 서사 작품을 차용한 것도 중국 고사 차용의 연장선에서 생각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 <店夢驚鎧戒淫報>(동야 하 204)이다. 이는 『해탁』의 <色戒>(『해탁』, 5932면)를 옮긴 것이다. 주인공 白某가 길을 가다가 한 절색 부인을 발견하고는 그녀를 유혹하기 위해 일부러 말채찍을 떨어뜨렸다가 천천히 주우면서 “滎陽生이 채찍을 떨어뜨렸는데 汧國夫人은 어찌 맞이해 들어가지 않을꼬?”라 말하며 유혹한다. 이 구절은 바로 <이와전>에서 주인공 남녀가 만나는 장면에서 이끌어낸 것이다.⁵⁾ 그런 점에서 <이와전>

4) 이 양상에 대해서는 두정남, 앞의 논문; 임완혁, 앞의 논문, 191-198쪽 참조.

5) 汧國夫人李娃 長安之倡女也...天寶中 有常州刺史滎陽公者...有一子 始弱冠矣...其父愛而器之 曰 此吾家千里駒也 應鄉賦秀才舉 將行...生亦自負視上第如指掌 自毘陵

의 내용이 이 작품에서 일종의 고사로 활용되었다. 아울러 <이와전>의 전반부는 『동야회집』의 <涉南國蔘商權利>(『동야회집』 하, 532면) 속으로 바로 차용된다. 이렇듯 <이와전>이 중국 고사로도, 중국 서사로도 존재하는 것을 보면, 『동야회집』이 중국 고사와 중국 서사를 거의 동일한 맥락에서 활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겠다.

그런데 중국 고사는 조선 사대부에게 이미 관습화된 것이 많지만 중국 필기소설의 서사는 식상할 정도로 관습화되지는 않았다. 그런 점에서 중국 서사를 활용하는 것은 중국 고사를 활용하는 것에 비해 그 효과가 비교되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 중국 고사 활용이 문체 차원에서라면, 중국 서사의 활용은 문체는 물론 내용 구성 전체와도 관련된다는 점에서 『동야회집』의 중국 필기 소설 전유는 조선 야담의 전개에서 큰 의의를 지니는 것이다.

2.2. 사실적 서사 공간의 확장

먼저 이원명은 『태평광기』에 실려 있던 <李娃傳>을 전유했다. 『동야회집』의 <涉南國蔘商權利>에서이다. 이 작품은 『청구야담』 <往南京鄭商行貨>(『청구야담』 하 461)의 골격⁶⁾에다 <이와전(李娃傳)>의 일부를 조합하였다. 『청구야담』 <왕남경정상행화>의 줄거리를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

정씨는 큰 상인이었다. 북경 무역을 하여 돈을 벌었는데 호방하게 남

發 月餘抵長安 居于布政里 嘗遊東市還 自平康東門立...有娃方凭一雙鬢青衣立 妖姿要妙 絕代未有 生忽見之 不覺停驂久之 徘徊不能去 乃詐墜鞭于地 候其從者 勅取之 累賂于娃(<이와전>, 3985쪽)

- 6) <往南京鄭商行貨>(청구 하 461)를 『동야회집』이 직접 수용했다는 증거는 없다. 다만 <往南京鄭商行貨>가 『학산한언』에 실려 있던 것이 전제된 것이기에 이원명이 다른 야담집에서 이미 읽은 것 중 하나일 가능성이 크다. <涉南國蔘商權利> 후반부와 <往南京鄭商行貨>를 비교해보면 직접 전재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비를 하여(豪縱浪費) 서관 운영의 빚을 못 갚아 감옥에 갇혔다. 정씨는 자기가 옥중에서 죽으면 공사에 아무 도움이 안 되니 다시 2만 냥만 더 빌려주면 3년 내 4만 냥을 갚겠다 제안했다. 안찰사가 그 뜻을 장하게 여겨 요구대로 은을 빌려주고 내보내 주었다. 정씨가 의주를 비롯한 바닷가 여러 읍의 부자들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 마침내 은 6,7만 냥을 더 빌렸다. 정씨는 그 돈으로 인삼과 초피를 구입하여 북경으로 갔다. 전에 알고 지내던 북경 상인이 그 물건을 남경으로 가져가면 100배의 이익을 얻으리라 하여 다시 길을 떠났다. 남경에서 물건들을 모두 고가로 팔아 수십 배의 이익을 남겼다. 도와준 사람들에게 후하게 사례하고 조선으로 돌아오니 불과 몇 달 만에 운영 은 4만 냥을 갚고 돈을 빌려준 부자들에게도 두터이 보답했다. 안찰사를 찾아가 보고를 하고 큰 선물도 주었다. 안찰사는 정씨를 진정 큰 영웅이라 격찬하고 벼슬을 천거하였다.

상인 정씨는 ‘호방하게 낭비를 하여’ 큰 빚을 지고 옥에 갇혔지만 절망하지 않고 다시 돈을 빌려 남경 무역으로 더 큰 돈을 벌어들여 돌아와 도와준 모든 사람에게 후사하고 마침내 안찰사로부터 ‘큰 영웅’ 칭호를 받고 벼슬까지 하게 된다는 줄거리다. 그런데 『청구야담』의 <왕남경정상행화>는 많은 일화들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못지않은 많은 일화들을 빠뜨리고 있다. 특히 위에서 밑줄 친 ‘호방하게 낭비’하는 모습이나 북경 상인을 알게 된 과정 등에 대한 서술이 없어 서사적 흥미가 반감되었다.

이원명은 『학산한언』이나 『청구야담』 소재 위 작품이 빠뜨리고 있는 부분을 보완하는 방법에 대해 고심을 한 듯하다. 그 결과 『동야회집』의 <涉南國蔘商權利>를 재창작하면서 덧붙인 대목을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사업에 실패하여 처자까지 팔게 된 강남 상인 오씨에게 주인공이 오 천금을 희사한 일
- ② 주인공이 북경 기생을 만나 재물을 다 탕진하고 버림받는 일

- ③ 돈이 없어 아버지 시신을 고향으로 옮기지 못해 울부짖는 董秀才에게 주인공이 천금을 준 일
- ④ 주인공이 閩陽驛 접사에서 강도를 만나 남은 돈 모두를 털린 일

①과 ③은 조선인이 중국에 가서 곤경에 처한 중국인을 조건 없이 도와주는 이야기로서 조선 야담집에서 두루 만날 수 있다. 『어우야담』의 <郭之元洪純彦>⁷⁾이 대표적이다. 꼭지원은 가산을 탕진하여 거지생활을 하는 어느 중국 사람에게 그 이름도 묻지 않고 은 삼백 냥을 준다. 홍순언은 패가하여 처자를 팔아야 할 위기에 처한 중국 사람에게 은 오백 냥을 주어 구해준다. 이런 내용은, 비록 조선의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돈이 없어 집안 장례를 치루지 못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이야기인 <江陵金氏>(『계서야담』, 89면), <過錦江急難高義>(『청구야담』⁸⁾ 하, 323면) 등 야담을 통해서도 보완할 수 있는 것이다. ④는 아주 소략한 강도이야기 일 따름이다.

이에 반해 ②는 특별하다. 물론 사대부가 기생에게 재물을 다 털리고 버림받는 이야기가 조선 야담에도 적잖이 있다. <許生者>(『계서야담』), <識寶氣許生取銅爐>(『청구야담』) 등이다. 그런데 그 기생들은 대부분 평양 기생들이며 또 이야기의 내용이 이미 널리 알려졌다. 그리고 기생들이 젊은 사대부의 돈을 수탈하는 방식이 단순하다. 그냥 돈을 탕진하게 만들고는 쫓아내려 하자 사대부가 뭔가를 요구하고, 기생은 마지못해 그 물건을 주는데, 나중에 보니 그게 큰 값어치가 있는 물건임이 밝혀져 사대부가 예기치 못한 행운을 누리게 되는 정도이다. 이런 진부함을 걷어내기 위해서 이원명은 기생의 행동을 북경 기생 고유의 것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도록 새롭게 제시해야 했다. 이럴 때 <捐千金洪象胥義氣>(『청구야담』)를 먼저 떠올릴 수 있었다. 역관 홍순언이 북경에 갔다

7) 유몽인, 『어우야담』, 돌베개, 2007, 신익철, 이형대, 조용희, 노영미 옮김, 239쪽.

8) 『청구야담』(상), (하), 아세아문화사, 1988.

가 청루를 지날 때 ‘은 천 냥이 아니면 들어올 수 없다는 글을 보고 궁금하여 들어갔다가 여인을 만난다. 그 여인은 侍郎의 딸인데 사랑이 궁금을 횡령하여 체포되었기에 천 냥에 팔려온 신세였다. 홍순언은 그 사정을 딱하게 여겨 천 냥을 여자에게 준 뒤 쳐다보지도 않고 나와버린다. 그 여자는 石尙書의 후처가 되었는데 결국 홍순언과 조선에 대해 은혜를 갚는다는 이야기다. 중국 여인이 기생으로 팔려오고 또 배경이 중국 청루라는 점에서 『동야회집』이 충분히 활용합직하다. 그러나 이원명은 이 이야기를 다른 작품으로(<報捐千金受報恩>)으로 수용했지 <섬남국 삼상각리>에 활용하지는 않았다. 이들 조선 야담들이 묘사하는 북경의 모습과 북경에서의 주인공의 경험 내용은 구체적이지 않고 그래서 실감을 초래하지 못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 상황에서 이원명이 새롭게 시도한 방법이 중국 필기소설을 활용하는 것이었다. 『태평광기』 484 권에 실려 있는 <이와전>을 선택했다. <이와전>은 중국에서 『警世通言』의 <玉堂春落難逢夫>로 개작되었고 조선에서는 『왕경룡전』이란 한문소설로 번안되었다. 이 세 작품 중 이원명은 가장 앞선 <이와전>을 선택했다. 비슷한 내용이었지만 『태평광기』의 <이와전>을 선택한 것은, 『동야회집』의 한문 문체가 백화문보다는 중국 필기소설의 문체에 더 가깝고, <이와전>의 짧은 길이도 야담에 적당했기 때문이라 보인다.

『동야회집』은 <이와전>의 핵심부분을 전유함으로써 중국 북경 청루에서의 특별한 경험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었다. 나아가 의미심장한 변개를 시도했다. <이와전>에서는 만신창이가 되어 죽을 지경에 이른 생을 이과가 구원하여 재기하게 해주고 자기도 신분상승을 하는 쪽으로 나아갔지만, 『동야회집』은 이과가 생의 재산을 철저히 빼앗고 냉혹하게 따돌리는 전반부만 가져왔다. 이로써 북경 청루의 교활하고 비정한 남자 호리기가 아주 구체적으로 기술될 수 있었다. 이런 장면은 다른 조선 야담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다.

이렇듯 이원명은 <이와전>을 전유함으로써 야담의 소재를 다양화하

고 특히 공간을 사실적으로 확장시켰다. 이국공간에서의 특별한 경험을 실감나게 기술하고 그것을 원 야담 작품과 긴밀하게 이어지도록 섬세한 수정과 번개를 한 것이다. 가령 남녀가 만나는 장면에서, ‘生跪拜前致詞曰’(<이와전>, 3986면⁹⁾)을 ‘乃前致詞曰’(동야 하 535면)으로 바꾸고, ‘生遽驚起 莫敢仰視 與之拜畢 敝寒燠’(<이와전>, 3986면)을 ‘下遽驚起 爲禮敝寒燠’(동야 하 535면)으로 바꿈으로써 주인공 남자가 사기 행각을 일삼는 창녀에게 절을 하지 않게 하였다. 또 <이와전>에서 생의 아버지는 생이 가문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자신의 명을 어겼다면 생의 옷을 벗기고 말채찍으로 수백 번 후려쳐서 거의 죽을 지경으로 만들고는 내팽개친다. 자식에게 잔혹한 응징을 하는 아버지의 이런 행동을 『동야회집』은 생략했다. 이러한 번개 덕분에 <이와전>에서 옮겨온 이 이질적인 일화가 조선 야담들과 원만하게 잘 연결되어 소기의 효과를 한껏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이점은 일화들의 조합에서 대체로 어색한 병치로 귀결되곤 하던 『동야회집』의 다른 경우와 많이 다른 것이다.

『동야회집』의 <涉南國蔘商權利>가 일화의 조합 과정에서 보여준 이러한 성공적 사례는 야담사 전개에서 새로운 국면이 시작되었음을 암시한다. 그것은 조선 야담이 대부분 조선 공간을 배경으로 한다는 점과 관련시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조선의 야담은 조선에서의 새로운 현실 경험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작품 세계 속으로 적극 담았다는 점에서 그 시대 어떤 갈래보다도 더 선도적 의의를 가졌다. 그런데 그 점은 서사적 경험의 세계를 조선에 한정시킬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만드는 것이기도 했다. 가령 중국을 배경으로 한 국문소설의 열린 서사공간이나 다채로운 상상 세계와 비교하면, 야담의 서사공간은 그 사실적 속성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좁다는 인상을 주어왔다. 야담은 저승 세계를 포괄하는 방법으로 서사공간을 확장하기는 했지만, 그런 방법은 현실 공간의 확장과는 무관하며 야담의 사실성에 흠집을 만드는 것이기도 하였다. 이

9) <이와전>(李昉, 『태평광기』 5, 계명문화사영인, 1982), 3986쪽.

원명은 <이와전>이라는 중국 필기소설을 과감하게 전유함으로써 현실적 배경 공간을 구체적으로 실감나게 확장시킨 성과를 거두었다.

Ⅲ. 『동야회집』의 『해탁』 전유 양상

<이와전> 수용에서 시작된 이원명의 시도는 『해탁』의 작품들을 대거 수록하면서 더 대담하게 이뤄졌다. 중국필기소설을 18편이나 집중적으로 끌어왔다는 사실은 예사 일이 아니다. 『해탁』과 『동야회집』의 관계는 세 경우로 나타난다. 첫째 『해탁』의 한 작품 전체를 『동야회집』 한 작품의 일부로 수용한 경우. 둘째, 『해탁』의 한 작품 전체를 『동야회집』의 한 작품으로 수용한 경우. 셋째, 『해탁』의 두 작품을 『동야회집』의 한 작품으로 수용한 경우 등이다.¹⁰⁾ 이런 방식은 『동야회집』의 조선 야담 조합 방식과 큰 차이가 없다. 조선 야담집을 편찬하면서 다른 조선 야담을 엮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중국 작품들을 가져왔다는 것은, 이원명이 중국 작품에 대한 이질감을 강하게 느끼지 않았음을 뜻한다. 『해탁』 소재 작품들은 조선 야담 작품들에 비해 좀 특별한 것일 따름이다.

이원명은 야담의 기록을 사대부 글쓰기의 일환으로 보았다. ‘야담적 글쓰기’가 전이나 역사기술과 마찬가지로 권위를 갖도록 하기 위해 먼저 주인공을 역사적 인물로 바꾸고 그 인물의 그럴듯한 일대기를 구성하였다. 서사적 흥미를 창출하기 위하여 역사적 인물이 가졌던 특징을 부각시키려 하였다. 『해탁』 작품을 가져온 것도 야담적 글쓰기에 대한 적극적인 의미부여와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 『동야회집』은 『해탁』 작품을 세 가지 방식으로 수용했는데, 그중 『해탁』의 한 작품 전체를 『동야회집』의 한 작품의 일부로 수용한 경우에 초점을 맞춰 살필 필요가 있다. 이원명

10)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강욱, 『한국 야담 연구』, 돌베개, 2006, 407-474쪽을 참조할 것.

이 조선 야담이 처한 어떤 문제적 상황을 포착하여 『해탁』 작품을 어떤 방식으로 전유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려 했는지가 이 경우에 가장 분명히 나타나기 때문이다.

3.1. 주인공의 변화를 위한 우연 삽입

『동야휘집』 권4 ‘技藝部’의 ‘문장’조에 실려 있는 작품들은 모두 탁월한 글재주를 가졌던 역사적 인물에 대한 이야기이다. <陳奏大筆振華譽>(李廷龜), <擢第奇文解鈍嘲>(申欽), <荷葉留詩贈寶墨>(李植), <紗幘督課登金榜>(張維), <弇州席上玩文辭>(崔岏), <朱使館中和詩韻>(車天輅) 등인데, 주인공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시작하여 어떤 방법으로 탁월한 글재주를 얻었는가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정구, 이식, 최립, 차천로 등은 날 때부터 글재주가 뛰어나 신동이라 불렸거나 장차 탁월한 문장가가 되리라 기대를 얻었다. 특히 그 타고난 재주를 더욱 빛나게 해줄 계기를 만나기도 했다. 이정구는 중국의 문호 王世貞과 교류했고, 이식은 선녀를 만나 벼루를 선물 받았다. 최립도 왕세정과 만나 공부를 더 하라는 격려를 받았다. 차천로는 처음부터 재주가 탁월했기에 더 이상 도움이 필요 없었다. 이들에 비해 <탁제기문해둔조>의 신희와 <사주독과등금방>의 장유는 뛰어난 문장가의 길을 걸어가지 못할 상황에 봉착한다. 신희는 일찍부터 科業을 익혔지만 功劬에 익숙하지 못했다. 장유는 병이 많아 독서에 몰두할 수 없었다. 두 사람은 특히 자신들을 격려해줄 중국 문인을 만나지 못했다. 이원명은 이 두 사람으로 하여금 중국 문인을 만나게 하여 글쓰기의 비약을 가져다주는 전략을 활용하는 대신, 두 사람을 ‘중국 서사 속의 특별한 인물’과 연결시켰다. 『해탁』 소재 <掃帚村鈍秀才>(『해탁』, 6051면)와 <搗鬼夫人>(『해탁』, 6067면)을 연결시킨 것은 이런 전략에 따른 것이다. 이원명은 중국 서사 속 인물을 실제 중국 문인 왕세정만큼 특별한 인물로 인식한 것이다. 중국 서사 속 인물을 만난 신희와 장유는 왕세정이나 선녀를 만난 이정구나 이식 못지않게 글쓰기

실력이 향상되었다.

<琴娥詒影證宿緣>(동야 상 358)는 좀더 포괄적인 변개 양상을 보여준다. 이 작품은 신희의 아들 신익성과 관련된 일화들을 총괄하고 거기에 『해탈』의 <掌中秘戲>를 덧붙인 것이다. <금아태영증숙연>은 신익성의 일생을 조명하되, 다음과 같은 일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 ❶ 신익성은 문장 재주가 뛰어났지만 부마의 신분이었기에 높은 벼슬을 하지 못한 것을 못내 한탄한 일.
- ❷ 가까운 친척에게 金轎를 빌려주려 했다가 반대에 부딪히자 금교를 부수게 한 일.
- ❸ 文衡이 못되어 한스러워하는 신익성을 위하여 선조가 신익성으로 하여금 문형 낙점을 받은 사람의 시를 평가하게 한 일.
- ❹ 신익성이 강릉 기생 홍장을 다시 만나는 일.
- ❺ 신익성이 ‘掌中秘戲’를 구경하고 여색을 삼가게 된 일.

신익성은 글재주가 뛰어났지만 공주와 결혼하게 되어 그 능력에 부합하는 높은 벼슬을 받지 못했다. 그는 이에 대해 한스러워한다. 신익성의 이런 처지와 관련된 이야기는 조선 야담집에서 두루 발견할 수 있다. ❶이 거기에 해당한다. ❷도 그 연장선이다. 부마의 자리에 있으면서 친한 사람에게 금교조차 마음대로 빌려줄 수 없다면 부마의 지위는 자기 인생에 걸림돌만 될 뿐이라는 생각에서 분풀이를 한 것이다. ❸은 그런 신익성을 선조 임금이 위로하는 일화다. 높은 벼슬을 하지는 못해도 문형에 오른 사람보다 신익성이 한 수 더 높은 영예를 누리게 한 것이다. 이상 ❶, ❷, ❸은 『기문총화』¹¹⁾의 <東陽尉申翊聖>(『기문총화』, 104)에 망라된 것이다.

❹는 유명한 홍장 고사다. 『동야회집』이 언급한 바¹²⁾ 읍지를 근거로

11) 『기문총화』, 『한국야담자료집성』 6, 고문헌연구회, 1987.

하면 홍장 고사는朴信-홍장-조운홀 사이에서 만들어진 이야기다.¹²⁾ 『청구야담』의 <鏡浦湖巡相認仙緣>(청구 하 401)에서는 박신을 巡使 某로, 조운홀을 本倅로 바꾸었다. 『동야회집』의 <琴娥詒影證宿緣>에서는 박신의 자리에 신익성을 넣어 이야기를 새로 꾸렸다. 신익성은 거문고를 잘 탔는데 홍장도 역시 그러했다는 것, 경포호에서 배를 타고가던 신익성이 거문고 소리를 매개로 하여 홍장의 존재를 인지하게 되었다는 것 등을 착목하여 ‘技藝部’ ‘琴棋’조에 넣었고 제목도 그렇게 지었다. 이로써 신익성은 낭만적 사랑의 주인공이 되었다.

문장과 재주가 뛰어난 신익성은 공주와 결혼하게 되면서 두 가지의 굴레에 구속되어 타고난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다. 첫째 문장력을 마음껏 과시할 수 없어 문형이 못되었다. 둘째 공주를 의식해야 하기에 여자관계에서도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다. <금야태영증숙연>은 신익성에게 없어진 두 굴레를 일정하게 벗겨주면서 또 다시 신익성으로 하여금 규범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먼저 ㉓을 통하여 신익성이 실제로는 당대 문형으로 낙점 받은 사람에 비해 한 수 위임을 추인해주었다. ㉔를 통하여 여색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자유롭게 만들어주었다. 이로써 신익성은 문형보다 한 수 위임을 인정받았고 그리던 사랑도 이뤘다. 신익성으로서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다. 선조 임금의 신익성이 기생 홍장에게 혹하여 살아가는 것을 처음부터 못마땅하게 여기고는, 홍장을 쫓아내게 했다. 그런 점에서 신익성과 홍장의 낭만적 사랑은 임금의 뜻을 어기는 행위다. 신익성이 일단 낭만적 사랑을 경험한 것을 용납한다 하더라도 그 사랑을 지속하게 할 수는 없다. 또 신익성은 여자 관계에서 도가 지나쳤다. 신익성은 도사로부터 배운 ‘採陰補陽之說’에 빠져 희첩을 널리 두고 그 기술을 시험하고자 한 것이다. 물론 다른 조선 야담집에는 신익성의 여색 탐닉과

12) 鏡浦之傍有巖名以紅嬌 此事載於邑誌(『동야회집』 상, 363쪽)

13) <강원도 강릉>, 『輿地圖書』 상, 국사편찬위원회, 1973, 592쪽.

관련된 더 충격적인 작품도 있다. <東陽尉申文忠翊聖>(『기문총화』, 476)이 그것이다. 이 작품에서 신익성은 자식이 뛰어난 玉이란 여자를 길가다 발견하고 데려와서는 총애하다가 그 뒤 마음을 바꾸어 원주 기생을 총애하게 되는데, 옥이 질투하여 목매어 죽는다. 신익성은 그녀를 애도하다 얼마 후 병이 든다. 자제들이 병구완을 하다가 기수 상태에서 보니 옥과 신익성이 평소처럼 관계를 맺고 있었다. 망측하여 자제들이문을 달고 나왔는데, 얼마 뒤 신익성이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이처럼 신익성은 여색에 대한 탐닉 때문에 비극적으로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동야휘집』은 『기문총화』의 이 이야기를 수용하지 않았다. 신익성이 여색 때문에 죽게 만들기 보다는 잠시 여색에 탐닉했지만 어떤 결정적 경험을 하게 함으로써 행실을 바꾸어 ‘정상적’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것이 신익성이라는 역사적 인물의 일생에 가깝고 이원명의 세계관에 부합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신익성과 홍장을 떼어놓는 것은 당장에는 임금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지만 궁극적 해결책은 못되었다. 여색에 대한 신익성의 근본 태도를 바꿔주는 것이야말로 근본적 해결책이다.

조선 야담에서 여색을 밝히던 남자가 달라지는 경우로는 <一儒生>(『기문총화』, 112면), <洪尙書受挺免刃>(청구 상 37) 등을 들 수 있다. <일유생>에서 주인공은 절색 여인을 겁탈하려고 엿보던 중 그녀가 중과 간통하는 장면을 목격하고는 중을 살해한다. 그리고 여인의 죽은 남편으로부터는 보은을 받아 과거에 급제하게 된다. 여기서 주인공은 바람둥이에 가까운데 상대 여자가 중과 간통하는 장면을 목격하고는 성도덕의 수호자로 표변했다. 이런 이야기는 야담집에 여럿 있다.¹⁴⁾ 야담집을 두루 읽은 이원명은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 익숙해져 있었을 것이다. 그

14) 대표적인 경우로는 <南冥讀書成大儒>(『청야담수』, 『한국야담자료집성』 4, 고문헌연구회, 1987, 270쪽), <殺一淫女而活一不幸>(『청야담수』, 401쪽) 등을 들 수 있다.

러나 이런 이야기들의 주인공은 부마인 신익성과 동일시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신익성은 이미 홍장과의 낭만적 사랑의 주체로 설정되었기 때문이다. <洪尙書受挺免刃>의 주인공 홍상서도 처음에는 하룻밤 목계된 주인집의 며느리를 유혹한 바람둥이였다. 그러다 며느리로부터 회초리를 얻어맞고는 대오각성한다. 그는 다음날 목계된 집의 여주인의 유혹을 뿌리침으로써 주인으로부터 큰 칭찬을 받는다. 여색을 탐닉하던 신익성을 홍상서와 동일시할 여지는 있다. 그로써 신익성을 달라지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신익성은 사회활동이 제한된 부마 신분이기 때문에 목을 상환을 설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또 부마가 평민가 젊은 부인으로부터 회초리를 맞는다는 상황이 거북스러웠기도 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조선 아담을 통하여 여색과 관련된 신익성의 행동을 수정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이라 추정된다.

한편 『해탁』에는 남자의 여색에 대한 집착을 경계하는 색다른 이야기가 여럿 있다. 우선 떠올릴 수 있었던 작품이 <色戒>(『해탁』, 5932면)이다. <색계>는 남자가 여색에 탐닉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 충격적인 장면을 보여준다. 즉 다른 여자를 겁탈하는 남자가 거의 동시에 자기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겁탈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상황이다. ‘자기가 남의 부인에게 한 짓을 남도 자기 부인에게 똑같이 한다’는 설정을 통하여 남의 여자에게 음탕한 짓을 하지 말라는 교훈을 만들어낸 것이다. 이원명은 이 이야기를 대단히 인상적으로 읽고는 <店夢驚鑑戒淫報>(동야 하 204면)란 제목을 붙여 『동야휘집』에다 옮겨놓았다. <색계>의 교훈을 받아들이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색계>의 주인공과 신익성을 동일시하기는 어렵다. 먼저 부마인 신익성이 남의 여자를 겁탈하게 만들 수는 없었다. 더욱 어려운 것은 신익성의 부인인 공주를 비록 꿈에서나마 다른 남자에게 겁탈당하게 하는 것이었다. 이원명은 그 대신 <掌中秘戲>(『해탁』, 6023면)를 선택했다. <장중비희>는 한 도인이 요술을 통하여, ‘採陰補陽之說’에 현혹되어 여러 희첩에 빠져 있는 宋生을 대오 각성하게 하

는 즐거리다. 도인의 손바닥에서 벌어지는 남녀 군상들의 음탕한 행위와 악귀들에게 잡아먹히는 그들의 비참한 최후는 현실 인간들의 음욕을 경계하기 위해 설정된 허구적 우언이다. 이 우언은 ‘내 안의 불이 일어나지 않으면 바깥의 불도 일어나지 않으니, 물로써 물을 건너는 것이야말로 영원히 사는 길’이라는 교훈을 제시했다. 이로써 여색에 탐닉하는 것이 부질없고 위험한 짓임을 충격적으로 보여준다. 『동야휘집』은 이 일화를 신익성과 간접적으로 연결시켰다. 신익성은 이 일화의 주인공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도인이 보여주는 요술의 목격자가 되었다. 신익성은 도인의 손바닥 위에서 전개되는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다. 그리고 손바닥 위 장면들은 극히 비현실적이다. 신익성은 <장중비회>의 사건과 직접 연결되지 않았기에 부마로서의 품위를 지킬 수 있었고, 그러면서도 그 충격적 목격을 통하여 자신의 행동을 근본적으로 반성하여 달라지게 된 것이다. 신익성은 크게 깨닫고 회첩을 멀리하고 현묘한 正門을 수련했다.¹⁵⁾

이원명은 『해탁』의 <장중비회>를 전유함으로써 신익성 관련 조선 야담 작품들을 조합하는 과정에서 봉착한 난관을 충분히 극복했다. <장중비회>의 이야기는 여색에 탐닉하던 신익성을 결정적으로 달라지게 하여, 부마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며 원만한 일생을 보내는데 결정적 기여를 한 셈이다. 그로써 신익성과 선조 사이의 갈등도 해소되었다.

3.2. 주인공의 속성 풍자를 위한 우언 첨가

<貧兒學詔托衆賓>(동야 상 758)과 <富翁教術除五賊>(동야 상 762)은 함께 ‘性行部’ ‘權貴’조에 나란히 실려 있다. 윤원형과 김안로라는 역사적 악인의 악행과 품성을 서술하는데 <貧兒學詔>(『해탁』, 6063면), <鄙夫訓世>(『해탁』, 5986면) 등 『해탁』의 작품을 중요하게 활용하였다. 두 작품의 제목이 둘다 『해탁』에서 옮겨온 내용을 지칭하는 것을 보면 『해

15) 公自此擯去姬妾 究心玄妙正門(366쪽)

탁』 작품의 비중을 짐작할 수 있다. <빈아학첨탁증빈>은 주로 윤원형의 뇌물 수수와 관련된 일화들을 조선 야담집이나 야사로부터 전채했다. 윤원형이 병조판서였을 때 한 무인이 화살집을 선물로 바치자 화를 내었다. 나중에 그 속에 비싼 담배 가죽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 무인에게 좋은 벼슬을 주었다는 일화를 먼저 실었다. 이조판서였을 때는 어떤 사람이 누에고치 백 근을 주고 참봉 벼슬을 요구했는데, 벼슬을 결정하는 순간 윤원형이 졸았다. 郎官이 천거할 사람의 이름을 재촉하니 윤원형이 잠결에 ‘고치, 고치’라 말하는 바람에 ‘高致’라는 이름을 가진 영풍한 시골 선비가 참봉 벼슬을 얻었다는 일화를 실었다. 이들은 윤원형이 권력을 악용하여 재물 축적에만 관심이 있었음을 알려준다. 그런데 이들 이야기들은 야담집과 야사에서 두루 알려져 있는 것이었다. 그 다음에 <貧兒學詔>(『해탁』, 6063면)을 실었다. <빈아학첨>은 가정 연간 冢宰 엄공의 집에는 못 아침꾼들이 모여 권세가 엄공에게 온갖 아침을 다하였는데, 엄공은 아부하는 말을 듣고 그 기분에 따라 벼슬을 알선해 준다. 그러던 어느날 천장에서 거지 사내가 아래로 떨어졌다. 장록이라는 거지였다. 그가 말하는 사연은 이러했다. 같은 거지 중에 錢禿子가 있었는데 언제나 자기보다 많은 돈을 얻어오는 것을 보고 비결을 물었는데 전독자는 ‘媚骨’과 ‘佞舌’이 그 비결이라 대답했다. 마침 밤마다 엄공의 집에 몰려와 아침하는 아침꾼들이 미골과 영설이 전독자보다 열 배 더하므로, 장록은 엄공의 천장에 숨어서 몰래 듣고 배워왔는데 그날 실수를 하여 굴러 떨어졌다는 것이다. 그뒤 엄공 집에 모인 아침꾼들이 장록에게 아침을 가르쳐주니 장록은 일년도 되기 전에 아침법을 완전 터득하고 돌아갔고 그로부터 장록의 돈벌이가 전독자보다 훨씬 많아졌다는 내용이다. 이는 아침과 뇌물로 벼슬을 구걸하던 명나라 사대부 사회를 통렬하게 풍자한 것이다.

『동야회집』은 야담집과 야사에서 윤원형과 관련된 부정적 일화들을 대부분 모아 열거했다. 그것들을 실제의 이야기들이거나 실제로 있었다

고 여겨져 널리 유포되었던 이야기였다. 그것들을 열거하는 것은 기존 야담집의 복사에 지나지 않는다. 이원명은 그 단계를 넘어서려 했다. <빈아학침>은 벼슬아치들의 아침과 타락이 극에 이르렀음을 보여주고 그것을 거지의 경우와 연결시킴으로써 신랄하게 풍자하였다. 이원명은 윤원형의 부정적 행실을 소개하되, 기존 이야기들을 망라하는 데 머물지 않고 윤원형의 행실을 좀더 포괄적으로 풍자하고 또 윤원형 주위 인물들의 행태까지 비판하기 위하여 <빈아학침>을 전유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물론 <빈아학침탁중빈>의 풍자적 범위가 <빈아학침>의 그것에 비해 훨씬 축소되기는 했지만¹⁶⁾<빈아학침탁중빈>이 <빈아학침>을 수용함으로써 윤원형의 타락을 풍자할 수 있게 되고, 그 결과 사회적인 반향을 불러일으킨 것은 사실이다.

<富翁教術除五賊>(동야 상 762)은 정치적 농간과 전횡을 일삼았던 김안로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다. 전반부에서는 야사나 야담집에 두루 실려 있는 김안로의 정치적 행보와 관련된 일화들을 열거했다. 귀양살이를 하다 인조의 부마였던 아들 禎의 도움으로 풀려났다는 것, 김안로가 나라를 그르칠 소인배라고 예언했던 김안로의 일화, 김안로가 정광필을 귀양 보내고 나라의 목장을 차지했다는 일화, 국모를 폐위시키려 했다는 죄목으로 김안로가 귀양가게 되었다는 일화 등이다. 이를 통해 김안로는 간사하고 재산축적에 욕심이 많은 인간으로 서술되었다. 그러나 이 내용은 널리 알려진 것이다. 이 진부한 설명법을 극복하는 방안은 『해택』의 <비부훈세>를 활용하는 것이다.

<鄙夫訓世>는 중개상인 노릇을 하여 거부가 된 모 응이 100전을 받고 특별한 치부 기술을 가르쳐주었다가 봉변을 당하는 내용이다. 모 응은 특별한 치부의 방법으로서 먼저 外賊을 다스려라고 충고한다. 다섯 외적이란 眼耳鼻舌身인데, 안이비설신 등이 원하는 것을 충당하는 데 돈이 많이 드니, 응당 그 요구를 묵살해야만 돈을 벌 수 있다 했다. 다음으

16) 이강옥, 앞의 책, 427쪽.

로 다섯 內賊을 다스려 물리쳐라고 충고하는데, 仁義禮智信이란 덕목들이 그것이다. 이 덕목들을 실천하는 데도 많은 비용이 드니 그것들 역시 물리쳐라고 했다. 모 옹의 말을 다 들은 무리들은 사례로 紙錢의 재를 내놓았다. 모 옹이 화를 내니 무리들은 ‘노인의 가르침은 정말 아름답소. 다만 인간 세상에서 그것이 행해지는 것이 걱정되오. 마땅히 귀신에게 그것을 가르쳐야 하겠소.’라고 말한 뒤 모두 귀신의 모습으로 변했다. 모 옹은 결국 졸도한다는 내용이다.

이 중 『동야회집』은 ‘외적’ 부분은 삭제하고 ‘내적’ 부분만을 살려 수용했다. 富翁이 김안로에게 내적인 인의예지신을 무시해야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해주자 김안로가 그 말에 감사한다. 그러나 부옹이 이런 이야기를 해준 것은 그가 ‘김안로의 인간 됨됨이를 꿰뚫어 알고 조롱한 것이었다.’¹⁷⁾ 화자와 청자 관계가 <비부훈세>와는 반대가 되었다. 이원명은 재물에 대해 욕심을 부리고 집착을 하는 김안로의 행태를 새롭게 서술하고 비판하기 위하여 『해탁』 작품을 변형시켜 수용한 것이다.

3.3. 형식 전유에 의한 다시쓰기

<阜蘭寺十美酬唱>(동야 하 493면)은 『해탁』의 <十姨廟>(『해탁』, 6000면)를 수용하였는데 앞의 것들과는 좀 다른 양상을 보인다. 『해탁』 <십이묘>의 줄거리는 이러하다. 上舍生 某가 十姨廟의 열 명의 여인상을 보고와 꿈을 꾸게 되는 데 꿈속에서 다시 그들을 만나 글재주를 겨룬다. 그들은 글짓기 규칙을 나름대로 만들어 지어가는데 四書의 구절을 따와서 옛 사람의 이름과 관련시키거나 남의 시구들을 모아 읊시를 만드는 식이다. 모는 그 과정에서 글을 짓지 못하여 무안을 당하고 열등감을 느낀다. 그 무렵 杜甫가 나타나 자기 억울함을 하소연한다. 두보는 십이묘가 있는 곳이 원래는 자기의 사당이 있던 곳인데 사람들이 ‘拾遺’를 ‘十姨’로 잘 못 읽어 십이묘를 만들었다고 했다. 십이는 모에게 그가 두

17) 蓋富翁揣安老之爲人 故如是嘲謔耳(766쪽)

보라고 가르쳐주었지만 모는 두보를 알지 못해 무식을 드러내었다. 꿈에서 깨어난 모는 여전히 두보가 누군지 몰랐는데 그래도 꿈 이야기를 계속 하니 사람들이 실소를 금치 못했다. 뒷사람들이 여인상을 철거하고 두보를 제사지내게 되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10명의 여인들은 정체가 분명하지 않다. 다만 그들은 달 밝은 밤에도 짝이 없이 외롭게 살아가는 자신을 한탄하고 있다. 그들은 외로움과 무료감을 이기기 위해 시짓기 놀이를 한다. 물론 율시에 그들의 외로운 심사가 농밀하게 드러나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시들은 그들의 사연을 구체적으로 담아내지는 못하고 있다. 특이한 점이라면 10명의 여인이 한 명의 남자보다 시작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과 그들이 다양한 글짓기 방식을 보여준다는 것 등이다.

이원명이 이 작품을 선택한 것은 우선 이 작품이 그 서술형식 속에 많고 다양한 성격의 시 작품들을 담을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또 10명의 여인이 따로 생활하고 그들을 한 남자가 만나게 되는 구성을 통해 여인들만이 간직한 심각한 사연을 드러낼 수 있었기 때문이라 보인다. 과연 이원명은 10명의 여인을 두 부류로 나눠 6명은 낙화암에 투신한 의자왕의 궁녀로, 나머지 4명은 널리 알려진 여성 시인 허난설헌, 桂生, 논개, 황진이 등으로 배치했다. 이들은 서로 만나 일정한 규칙을 만들어 시를 짓고 그에 대해 서로 평을 하거나 소감을 이야기한다. 이원명은 이 대목에다 <십이묘>의 대부분 구절을 끌어오고 새로운 등장인물과 배경에 맞도록 일부를 변경하고 덧붙였다.

우선 등장하는 남자를 한 사람에서 두 사람으로 늘였다. 그중 한 사람인 湖西亞使 呂가 백마강을 거슬러 올라가며 유람하는 데서 이야기는 시작한다. 이것은 <십이묘>에서는 없던 대목이다. <십이묘>의 서두는 십이묘의 기둥과 벽, 열명의 여성 소상에 대한 소개, 그리고 지나가던 畝生이 십이묘에 들어가 그 소상을 구경하는 것에 대한 설명 등으로 이뤄져 있다. <십이묘>가 외형의 특징에 초점을 맞췄다면, <고란사십미수

창>은 백마강 유람을 통하여 낙화암과 고란사리는 역사적 공간을 부각 시키고자 하였다. 모는 옆에 있던 기생의 제안으로 백제 명승지에 대한 시를 짓지 않을 수 없었는데, 그것이 주위의 비웃음을 가져온다. 또 한 명의 남자는 몸을 동행했던 여의 從弟 某이다. 모는 형의 시가 너무나 졸렬한 것을 개탄하며 혼자 낙화암에 올라가 시 한 수를 짓고는 술잔을 거꾸 기울이고는 강가에서 잠이 든다. 그 뒤로 전개되는 것이 10명의 여인과 모의 만남이다.

이원명은 6명의 백제 궁녀와 4명의 유명 여성 시인들을 등장시켜 다양한 詩作 놀이를 하게 한다. 물론 이런 시작 놀이 중에는 <십이묘>에 있는 것도 있지만, 새로운 시작법들을 덧붙인 것도 있다. 가령 四書의 구절을 인용하고 그것이 고인의 이름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것은 <십이묘>에도 있지만, ‘以詩一句 唐詩一句 合成一藥名’¹⁸⁾의 작시법은 새롭게 덧붙인 것이다. 일종의 회작시 놀이라고 하겠는데, 조선후기 여인들 사이에서 시 그림으로 놀이를 하는 것이 널리 유행했던 분위기¹⁹⁾무관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이원명이 이런 회작시들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삼은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10명의 여인을 통하여 중국과 조선에서 회자되던 7언시들을 적절히 배치하면서 즐기려 했던 게 아닌가 한다. 사실 <십이묘>에서 여인들이 제시한 시들은 대부분 당시의 유명 구절을 옮긴 것이 많듯²⁰⁾, <고란사십미수창>에 등장한 4명의 조선 여성들의 시 작품도 다 그들의 시 중에서 유명한 것들이나 아니면 다른 문인들의 시 작품 중 몇 구절을 따온 것들이다. 가령 허난설헌의 ‘錦帶羅衣積淚痕 一年芳草怨王孫 瑤琴彈罷江南曲 雨打梨花畫掩門’²¹⁾은 『西厓先生別集』 권

18) 동야 하 501쪽.

19) 이종목, 놀이로서의 한시 - 버클리대학 소장 규방미담(閨房美談)에 대하여, 『문헌과 해석』, 2006년 겨울, 7-9쪽.

20) 가령 四姬는 스스로 집구를 하겠다 공언한 뒤, 王勃의 <滕王閣詩>로부터 ‘物換星移度幾秋’를, 劉商의 절구시로부터 ‘鳥啼花落水空流’를(동야 하 497쪽) 따왔고, 二姬의 ‘香風引到大羅天 月地雲塔集洞仙’(동야 하 496쪽)은 <牛僧孺周秦行記>로부터 따온 것이다.

4 <雜著>에 허난설현의 시로 소개된 작품이다. 계생이 읊은 것으로 제시된 ‘洞天如水月蒼蒼 柿葉蕭蕭夜有霜 何處細簾人獨宿 玉屏還羨畫鴛鴦’은 『芝峯類說』 卷十四 <文章部> 七에서 楊士奇의 첩의 시로 소개된 작품이다.²²⁾ 더욱이 백마강과 관련하여 가장 널리 알려진 시 중의 하나인 洪春卿의 <백마강>(國破山河異昔時 獨留江月幾盈虧 落花巖上花猶在 風雨當年不盡吹)²³⁾을 一姬의 목소리를 통하여 읊기고 있는데, 그것은 『송계만록』에 실려 있는 작품이다. 아예 고인의 시구를 모아 읊시를 만들자는 제안을 한 데²⁴⁾서 짐작할 수 있듯, <고란사십미수창>은 10명의 여인의 입을 통하여 편찬자가 익히 보아오고 외워왔던 시들을 마음껏 과시하는 성격도 다분히 갖는 것이다.

요컨대 『동야회집』의 <십이묘> 전유는 색다른 양상을 보인다. 앞엣 작품들이 주로 조선의 야담이나 야사를 엮어가던 중 그 속 일정한 자리에 『해탁』의 작품을 끌어와 전유한 반면, <고란사십미수창>은 『해탁』의 <십이묘>을 골격으로 삼고 그 사이에 조선의 역사와 시를 실은 것이다. 이것은 형식의 전유를 통한 다시쓰기 혹은 페러디라 할 수 있다.

IV. 『동야회집』의 중국 필기소설 전유의 의미

『동야회집』이 기존 문헌을 수용한 경우를 따져보면 의도적으로 변경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원문과 축자적으로 대응된다. 이원명이 다른 문헌을 활용할 때 단지 자신의 기억을 되살리는 식이 아니라 문헌들을 앞에 두고 직접 보면서 읊겼음을 뜻한다. 이원명은 조선 야담집과 중국 필기

21) 동야 하 497쪽.

22) 다만 일부 구절에 출입이 있다. ‘洞天如水月蒼蒼 樹葉蕭蕭夜有霜 十二細簾人獨宿 玉屏還羨畫鴛鴦’

23) 동야 하 498-499쪽.

24) 동야 하 504쪽.

소설류들을 두루 읽었고 또 그들 문헌들을 소장하고서²⁵⁾ 그 문헌들을 이리저리 비교하며²⁶⁾ 나름대로 새로운 작품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다고 하겠다. 이로써 『동야회집』은 구연 야담의 소극적 기록보다는 사대부적 글쓰기의 성격을 더 강하게 갖게 되었다.

이원명은 구연 야담을 기록하거나 다른 조선 야담집 자료들을 옮길 때와 같은 태도로 중국 필기소설들을 옮겼다. 그리고는 어떤 인용 표시도 하지 않았다. 그가 <이와전>과 『해탁』 작품들을 조선 야담 작품 속으로 끌어넣을 수 있었던 것은 조선 시대 사대부들이 중국 서적들을 조선 한문 서적과 다를 바 없이 자유롭게 읽고 받아들인 분위기와도 관련이 된다. 물론 다른 시각에서 설명하면 구연 야담이 한문으로 기록되면서 중국 기록 문학과도 소통할 기반을 마련했다고도 볼 수 있다. 이원명은 사대부로서의 글쓰기 저력을 활용했을 뿐만 아니라 기록 야담의 잠재성을 정확히 포착하고 적절히 되살린 것이다.

이원명이 중국 필기소설을 전유한 방식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배경 공간을 확장하거나 주인공을 인상적으로 변화시키고 풍자하기 위해 중국 필기소설 작품의 일부 혹은 전부를 활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이원명은 조선의 단편 서사들 사이에 중국 필기소설의 서사 작품을 끼워 넣는 방식을 활용했다. 그 과정에서 앞뒤 관계를 원만하게 만들기 위해 주인공이나 지명을 바꾸거나 인물 관계를 조정하기는 했지만, 서술구조나 형식의 변화는 없었다.

조선 야담이 현실적 경험이나 역사적 사실을 담으면서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 허구성을 덧붙여갔다는 것은 서사로서의 큰 생동력을 획득했음

25) 이원명은 『동야회집』 12권 이외, 『正史輯要』 20권, 『鍾山漫錄』 10권 등도 집필하였다.(이원명, <慕碣銘>) 방대한 자료를 확보하지 않고서는 이런 총서 야사류를 간행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원명의 저술에 대해서는 홍성남, 앞의 논문, 41-42쪽 참고할 것.

26) 이에 대해서는 임완혁이 상세하게 분석한 바 있다. 즉 이원명은 보다 나은 문장을 취하거나 서사적인 면을 강화하려는 의도에서 『동패락송』과 『기문총화』를 비교해가면서 그 장점을 취하였다고 분석되었다.(임완혁, 앞의 논문, 151-163쪽)

을 뜻한다. 18세기 이후 자기 갈래 고유의 서술형식을 갖춘 야담 작품이 많이 창출된 것도 근본적으로는 이런 갈래적 생동력을 전제로 한 것이다. 특히 경험에 바탕을 둔 허구는 사실주의 서사의 기본이면서 가장 가치 있는 미덕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19세기 중반 전후로 새로운 경험을 담는 정도가 약해지고 경험이나 역사로부터 허구로 나아가는 전환 역시 원활하지 않게 되었다. 그 이유는 여러 각도에서 분석되어야 할 숙제이지만 어쨌든 이렇게 되면서 이 시기에 나온 야담집은 기존 문헌에 실린 작품을 단순히 전제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동야회집』도 이런 흐름 속에서 배태된 것이다.

경험이나 역사에 뿌리를 둔다는 것은 현실과 사실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주지만 어느 정도 거기에 익숙해지게 되면 그 자체가 진부한 굴레가 되어 자유로운 상상력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또 함축할 수 있는 의미가 알아질 수 있다. 서사 세계 밖에 존재하는 사실과 역사는 고정되어 있으며, 그것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서사 세계 자체는 서사 세계 밖의 사실과 역사를 그럴듯하게 지시하는 것이 일차적 목표여서 다른 의미를 연상시키는 데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 조선 야담에는 서사적 메타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사실주의적 야담이 새롭게 봉착한, 심각하게 우려되는 국면이었다. 이원명이 조선 야담집을 읽으면서 느낀 소회 중 하나도 그와 관련된 것일 가능성이 크다. 이런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이거나 역사적인 인물을 좀 더 인상적으로 형상화하거나 그 인물을 역사적 사실에 얽매이지 않고 더 다채로운 의미를 생성해내는 주체로 탈바꿈시키는 것이 필요했다. 이런 요구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중국 필기소설을 차용했다고 본다. 이원명은 조선 야담 작품들을 열거하고 그 사이 적절한 곳마다 <이와전>이나 『해택』 소재 작품들의 전부 혹은 일부를 끼워 넣는 방식을 시도하였다. 이렇게 도입된 중국 필기소설 작품들은 기존 조선 야담의 한계를 내용적 차원에서 넘어설 수 있게 했다. 작중 인물의 특징을 인상적으로 크게 부

각시켜 풍자하거나 배경 공간을 비약적으로 구체화하고 확장하였고 의미를 함축적으로 생산해낼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은 ‘내용’이나 ‘주제’의 전유라 할 수 있겠는데, 이 전유는 일화에서 소설로 나아가게 하는 ‘의미 전환’을 창출하기도 했다. 서사의 서술이 시작되면 어떤 인물이나 사건의 귀추에 대한 예상이 이뤄진다. 이미 널리 알려진 기존 서사를 바탕으로 한다면 비록 새롭게 포장이 된다 하더라도 예상은 빗나가지 않는다. 반면 서사의 중간에 낯선 부분이 삽입되면 처음의 예상에서 벗어나는 엉뚱한 방향으로 서사가 전개될 수 있다. 그것이 소설적 의미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것인데, 『동야회집』의 중국 필기소설의 전유는 이런 의미전환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가진다.

또 다른 전유는 형식의 전유다. 이것은 <十姨廟>(『해탁』, 6000면) → <臯蘭寺十美酬唱>(동야 하 493면)에서만 나타난 것이다. <고란사십미수창>은 『해탁』의 <십이묘>을 골격으로 삼고 그 사이에 조선의 역사와 시를 실었다. 그것은 <십이묘>의 형식을 전유하여 조선적 감각과 문제 의식을 담은 것이다. 그런 점에서 다시쓰기 혹은 패러디라고도 할 수 있다. 형식을 패러디하여 조선적 내용을 담았다는 것은 전유의 활용영역을 더 확장시켰다 할 수 있다. 『동야회집』에는 그 이외의 형식적 패러디를 찾을 수 없지만, 이 한 사례만 하더라도 일정한 의의를 부여할 수 있다. 특히 <고란사십미수창>은 <십이묘>를 패러디하면서도 조선에 이미 형성되어 있던 몽유록 형식에도 다가갔다. 몽유록의 관점에서 보면, 이원명이 몽유록에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어 <십이묘>를 패러디하는데 도움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십이묘>를 패러디하고 몽유록을 활용함으로써 이원명이 궁극적으로 확보한 것은 야담을 글쓰기 차원에서 한껏 비약시킨 것이다. 작품의 대부분이 근체시로 구성되게 했다는 것 자체가 말로 사대부적 글쓰기로서의 야담을 특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하겠다.

이원명이 『해탁』 작품을 수용한 것은 寓言 혹은 메타포에 대한 관심과 관련된다. 특히 『해탁』의 작품의 전체가 『동야회집』의 한 작품으로

수용된 경우는 대체로 우언의 서술 양식을 취한 경우가 많다. 이원명은 ‘가볍고’ ‘유쾌한’ 야담에다 다시 무거운 관념을 부여하려 한 것이다. 이원명이 인식한 조선 야담은 사실주의 원리에 의한 직서의 수사를 지향한 것이다. 조선 야담이 등장인물의 자기 경험에서 출발한 것이기에 이런 수사적 경향은 당연하다 하겠다. 그러나 야담 듣기나 읽기가 계속되면서 사실주의에 의한 직서의 수사는 향유자를 식상하게 만들 여지가 있었다. 그리고 경험의 과시가 때로는 윤리나 교훈에 위배되는 경우를 종종 발견하게 된다. 이에 사대부의식이 강한 이원명이 그런 야담을 쇠신하려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동야회집』의 존재는 조선 야담이 동아시아 필기소설의 전통을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사실주의 직서에다 메타포를 가미하려 했음을 증언한다. 이로써 야담의 수사적 영역을 확장하였다. 역사나 경험적 사실을 매개로 하여 교훈적 주제를 창출하던 조선 야담이 우언을 매개로 하여 새로운 주제²⁷⁾를 창출하는 단계로 나아가려 했던 것이다. 그 결과 풍자와 비판이 야담의 중요한 수사로 떠오르게 되었다.

V. 결론

본고는 『동야회집』이 다른 문헌에 실려 있는 작품을 활용하는 독특한 방식을 ‘전유(Appropriation)’로 보고 특히 중국 필기소설인 <이와전>이나 『해탈』 소재 작품들을 수용하는 양상을 따져보았다.

『동야회집』은 <이와전>의 핵심부분을 전유함으로써 중국 북경 청루에서의 특별한 경험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었다. 야담에서 사실적 공간을 확장하는 길을 보여준 것이다. 조선의 야담은 조선에서의 새로운

27) 當然不是“以史爲鑒”，而是以童話和寓言爲鑒(소의평, 《두봉한화》: 中國古典小說中的框架結構, 『중국어문학』, 영남중국어문화회, 1997, 214면)

현실 경험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작품 세계 속으로 적극 담았다는 점에서 그 시대 어떤 갈래보다도 더 선도적 의의를 가졌지만, 서사적 경험의 세계를 조선에 한정시킬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만드는 것이기도 했다. 이원명은 중국 필기소설 <이와전>을 과감하게 전유함으로써 현실적 배경 공간을 구체적으로 실감나게 확장시킨 성과를 거두었다. <이와전> 수용에서 시작된 이원명의 시도는 『해탁』의 작품들을 대거 수록하면서 더 대담하게 이뤄졌다. 이것은 이원명이 야담적 글쓰기를 사대부 글쓰기의 하나로 생각했기에 가능했다.

이원명이 중국 필기소설을 전유한 방식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배경공간을 확장하고, 주제나 인물 형상을 강렬하게 만들어 풍자하는데 중국 필기소설 작품의 일부 혹은 전부를 활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이원명은 조선의 단편 서사들 사이에 중국 필기소설의 서사 작품을 끼워 넣는 방식을 활용했다. 그 과정에서 앞뒤 관계를 원만하게 만들기 위해 주인공이나 지명을 바꾸거나 인물 관계를 조정하기는 했지만, 서술 구조나 형식의 변화는 없었다. 또 다른 전유는 형식의 전유다. 중국 필기소설의 형식을 패러디하여 조선적 내용을 담은 것인데, 그것은 전유의 활용영역을 더 확장시켰다 할 수 있다.

조선 야담은 서사적 메타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였다. 이것은 사실주의적 야담이 새롭게 봉착한, 심각하게 우려되는 국면이었다. 이런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이거나 역사적인 인물을 좀 더 인상적으로 형상화하거나 그 인물을 역사적 사실에 얽매이지 않고 더 다채로운 의미를 생성해내는 주체로 탈바꿈시키는 것이 필요했다. 이원명이 중국 필기소설을 전유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 이루어졌다고 본다.

이원명은 ‘가볍고’ ‘유쾌한’ 야담에다 무거운 관념을 부여하려 하였다. 이원명이 인식한 조선 야담은 사실주의 원리에 의한 직서의 수사를 지향한 것이다. 조선 야담이 등장인물의 자기 경험에서 출발한 것이기에 이런 수사적 경향은 당연하다 하겠다. 그러나 야담 듣거나 읽기가 계속

되면서 사실주의에 의한 직서의 수사는 향유자를 식상하게 만들 여지가 있었다. 그리고 경험의 과시가 때로는 윤리나 교훈에 위배되는 경우를 종종 발견하게 된다. 이에 사대부의식이 강한 이원명이 그런 야담을 쇄신하려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동야회집』의 존재는 조선 야담이 동아시아 필기소설의 전통을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사실주의 직서에다 메타포를 가미하려 했음을 증언한다. 이로써 야담의 수사적 영역을 확장하였다. 역사나 경험적 사실을 매개로 하여 교훈적 주제를 창출하던 조선 야담이 우언을 매개로 하여 새로운 주제를 창출하는 단계로 나아가려 했던 것이다. 그 결과 풍자와 비판이 야담의 중요한 수사로 떠오르게 되었다. 이것은 『동야회집』이 중국 필기소설을 전유함으로써 창출해낸 가치라 할 수 있다.

주제어 : 동야회집 전유, 필기소설, 이와전, 해탁 이원명, 메타포, 풍자, 알레고리

참고문헌

심기봉, 『해탁』, 『필기소설대관』(筆記小說大觀) 3, 新興書局 有限公司, 民國 67年.

<李娃傳>(李昉, 『태평광기』 5, 계명문화사영인, 1982).

이원명, 정명기 편, 『原本 東野彙輯』 상, 하, 寶庫社

『기문총화』, 『한국야담자료집성』 6, 고문헌연구회, 1987.

『청구야담』(상), (하), 아세아문화사, 1988.

『청야담수』, 『한국야담자료집성』 4, 고문헌연구회, 1987.

『輿地圖書』 상, 국사편찬위원회, 1973.

두정님, 「『동야회집』 연구」(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90).

소의평, 《두봉한화》: 中國古典小說中的框架結構, 『중국어문학』, 영남 중국어문학회, 1997.

유몽인, 『어우야담』, 돌베개, 신익철, 이형대, 조용희, 노영미 옮김.

윤세순, 「『동야회집』의 성격 고찰-『어우야담』의 수용양상을 통해서」(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1991).

이강옥, 「『동야회집』의 『해탁』 수용 양상」, 『구비문학연구』(한국구비문학회, 1995).

이강옥, 「조선후기야담집연구」(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82).

이강옥, 『한국야담연구』, 돌베개, 2006.

이병찬, 『동야회집 연구』 (보고서, 2005).

이종묵, 놀이로서의 한시- 버클리대학 소장 규방미담(閨房美談)에 대하여, 『문헌과 해석』, 2006년 겨울.

임완혁, 「문헌전승에 의한 야담의 변모양상: 『동패락송』과 『계서야담』, 『청구야담』, 『동야회집』의 관계를 중심으로」(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1997).

조희웅, 『조선후기 문헌설화의 연구』 (형설출판사, 1980).

홍성남, 「『동야회집』 연구-『기문총화』 수용을 중심으로」(단국대 석사학
위논문, 1992).

<Abstract>

A Study on *Dongyawahjip*'s Appropriation of Chinese Novel and Its Meaning

Lee, Kang-Ok

I would argue that *Dongyawahjip* appropriated Chinese Pilgi-novel, *Iwajeon* and *Haetak*. This paper analysed the *Dongyawahjip*'s appropriation strategy.

By appropriating *Iwajeon*, *Dongyawahjip* shows us the special experience in the geisha house of Peking, which extended the realistic space of Yadam. Lee Wonmeong, the editor of *Dongyawahjip*, appropriated *Haetak* by using much more diverse methods. It became possible in the condition that Lee Wonmeong thought the recording of Yadam as a kind of Sadaebu's writing.

Two distinctive methods were employed by Lee Wonmeong in his appropriation of Chinese Pilgi-novels. Firstly, Lee inserted the whole or part of Chinese Pilgi-novels into the parts of Chosun Yadam in order to make its theme and characters more impressive. Secondly, Lee Wonmeong appropriated the forms of Chinese Pilgi-novels. By parodying the forms of Chinese Pilgi-novels, Lee Wonmeong widened the appropriation scope of *Dongyawahjip*.

Metaphors were hard to find in Chosun Yadam, which presented serious problems to the writers of realistic Yadam. Consequently Lee Wonmeong appropriated Chinese Pilgi-novels to solve this problem.

Lee Wonmeong attempted to bring serious ideas to the soft and

enjoyable Yadam. Yadam was narrated by a realistic rhetoric, because Yadam was rooted in the real experiences of people. However, as public recitation of Yadam grew more and more popular, its realistic rhetoric sounded dull to the people. So Lee Wonmeong tried to find a way to renew Yadam, which made him turn to Chinese Pilgi-novels. In the earlier time, Yadam tended to construct the moralistic themes based on the realistic or historic experiences in rather serious ways. With Lee Wonmeong's appropriation of *Iwajeon* and *Haetak* into *Dongyawhijip*, satire and allegory became the most important rhetoric of Yadam, which, I would argue, is the greatest achievement of Lee's appropriation of Chinese Pilgi-novel.

Key Words : Dongyawhijip. appropriation. Pilgi-novel. Iwajeon. Haetak. realistic space of Yadam. Lee Wonmeong. metaphor. serious. soft. enjoyable. moralistic. realistic or historic experience. satire. allegory.